

## 최근 經濟動向

李 揆 哲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 一. 주요 업종별동향

#### ◇ 자동차

작년 12월중 자동차 생산은 극심한 內需不振에 따른 재고누적과 부품업체의 부도로 인한 부품공급의 차질 등으로 조업단축 및 생산 중단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년('96) 동월대비 11.3% 감소한 19만 9천대에 머물렀다.

內需는 연말 재고소진을 위한 각 업체의 대대적인 할인판매에도 불구하고 IMF 한파로 인한 소비자 구매심리의 급속한 냉각으로 전년동월대비 41.0% 감소한 10만대에 그쳐 침체현상이 지속되었다.

수출은 외환부족에 따른 銀行圈의 輸出換어음 할인기피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수출확대 노력과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등으로 西유럽, 北美, 中東 지역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19.0% 늘어난 14만 7천대에 달하였다.

작년 한해의 연간 수급실적은 생산의 경우, 대규모 신설공장의 완공과 활발한 新모델 上市에도 불구하고 在庫累增 해소를 위한 조업 단축과 기아사태 以後의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2,818천대에 그쳐 지난 8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작년도의 내수는 그간 다양한 할인판매제

의 도입 등, 업계의 적극적인 판매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油價 등, 차량 維持費의 인상 및 금융위기까지 겹쳐 소비자의 구매심리가 크게 위축됨으로써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전년 대비 8.0% 감소한 1,513천대로 史上 처음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수출은 年初 노동법 파동으로 인한 생산차질에 이어 기아사태以後 기아와 아시아자동차의 수출차질과 對外信認度의 하락 및 동남아 통화위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1,317천대에 머물러 증가세가 크게 둔화 되었다.

이처럼 극심한 내수침체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와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 삼성자동차의 시장진입 체비 등과 함께 IMF 체제하에서의 예상되는 低成長 新政府 출범 이후의 재벌개혁 등에 따른 국내 자동차업계의 내부적인 구조 조정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자 동 차

(단, %)

	1996. 12월		1997.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産	224,236	△16.6	△4.9	198,815	△20.3	△11.3	2,818,275	0.2
• 出 荷	293,446	1.3	8.9	247,432	2.2	△15.7	2,829,826	△0.9
(內 需)	169,667	12.2	△5.4	100,113	△10.7	△41.0	1,512,935	△8.0
(輸 出)	123,779	△10.7	37.1	147,319	13.4	19.0	1,316,891	8.8

◇ 전기·전자

작년 12월중의 전자산업 수출은 가정용전자의 감소세가 심화된 가운데 산업용전자와 전자부품도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8.5% 감소한 3,193백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작년 한해 전체로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40,734백만달러를 시현하였다.

部門別로는 가정용전자가 영상기기, 음향기기 등의 감소세가 이어져 '97. 12월중 전년동월대비 20.0% 감소한 428백만달러, 年間으로는 전년대비 16.8% 감소한 6,311백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전자는 컴퓨터 주변기기의 부진에 따라 12월중 전년동월대비 10.0% 감소한 767백만달러에 이르러 컴퓨터, 통신기기 모두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여 전년대비 15.4% 증가한 9,363백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부품은 반도체의 수출증가세가 둔화된 12월중 전년동월 대비 5.0% 감소한 1,998백만달러, 年間으로는 전년수준과 비슷한 25,060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금년 들어 D램가격이 상승세로 反轉되면서 그간 가격하락에 따른 採算性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반도체업계의 收益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통신업계가 경쟁력 제고와 원가절감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신기술·신제품의 개발도 속속 이루어지는 등, 전기·전자업계는 지속적인 자

구노력과 함께 업체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일반기계

'97. 12월중 국내 기계수주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발주 감소로 통신업 등, 공공부문의 발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11.9% 감소하였다.

제조업부문의 기계수주는 경기침체 지속,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설비투자 부진으로 조립기계, 자동차 등의 급격한 발주 감소를 중심으로 전년동월에 比하여 8.0% 감소하였으며, 건설업의 기계수주는 지난해 12월 대규모 발주의 상대적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29.3% 감소하였다.

작년 연말중 일반기계 수출은 내수부진으로 인한 업계의 수출확대 노력 및 원貨의 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대규모 수출의 상대적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機種別로는 공작기계, 운반하역기계, 섬유기계 등의 수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개도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난 농업용기계와 산업용냉장고 및 에어컨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은 냉동공조기계가 수출을 선도하였다.

수입에 있어서는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설비투자의 부진, 수출수요 둔화와 환율상승에 따른 핵심부품의 수입감소 등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기종별로 섬유기계, 제지인쇄기계, 건설기계, 화학기계 등이 전년동월에 比하여 50%이상 크게 감소하는 등,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국내 공작기계산업의 수출은 주요 시장인 미국이 항공우주 및 컴퓨터 장비의 성장이 지속되고 유럽지역 또한 통독 이전의 경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업계 또

전 자 (백만불, %)

	1996. 12월		1997.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수 출	3,490	△0.8	△17.3	3,193	△9.3	△8.5	40,734	0.1
(가정용)	535	△9.6	△26.6	428	△12.8	△20.0	6,311	△16.8
(산업용)	852	△1.4	15.6	767	△7.7	△10.0	9,363	15.4
(부 품)	2,103	2.0	△23.7	1,998	△9.1	△5.0	25,060	0.3

한 환율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3억 6천5백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기계 (百萬달러, %)

	1996. 12월			1997.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수 출	946	39.8	17.0	898	18.4	△5.1	7,784	5.8

### ◇ 철 강

'97년 4/4분기초 이후 건설부문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던 철강재 내수는 본격적인 겨울철 비수기가 닥치면서 건설공사가 마무리되고 경기침체로 기타 수요산업의 생산도 위축되면서 97. 12월 들어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작년도 철강재 내수는年末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부진을免치 못하여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97. 12월중 조강생산량은 전년동월 대비 12.3% 증가한 3,776천M/T에 달하여 증가추세를 지속시켰다. 이로써 1997년 전체 조강생산량은 42,554천M/T에 이르러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는데, 이는 강원산업 등의 신설공장 가동으로 증산이 불가피했던 데다 수요면에서도年末 마무리 공사의 集中으로 건설부문의 수요가意外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97. 12월중 수출실적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對 동남아 수출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13.1% 감소한 505백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나 작년도 수출은 내수 부진을 補完하기 위한 업계의 해외 마케팅 강화로 年中 호조를 유지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한 6,740백만달러에 達할 것으로 추정된다.

輸入은 국내 수요의부진으로 감소추세를 지속하여 '97. 12월중에도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한 514백만 달러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며, 1997년 전체 수입 역시 전년동기 대비 9.8% 감소한 7,142백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국제강은年間 조강생산능력 900천M/T과 중형형강 생산능력 720천M/T 및 중후판 생산능력 1,500천M/T을 갖춘 포항공장의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며, 인천제철도 연간 조강생산능력 800천M/T과 중형형강 생산능력 800천M/T을 갖춘 인천공장이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동남아 현지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포항제철은 인도네시아에 年産 75천M/T 규모의 합작 STS냉연강판 공장을 着工하였고 미얀마에도 年産 30천M/T규모의 합작 熔融亞鉛鍍金鋼板工場을 착공하였다.

철 강 (千M/T, 百萬달러, %)

	1996. 12월			1997.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粗鋼生産	3,361	3.9	1.9	3,776	0.1	12.3	42,554	9.4
輸 出	583	4.8	△16.4	505(e)	△21.2	△13.1	6,740(e)	11.3

### ◇ 석유화학

'97. 12월의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최근의 설비능력 확충으로 공급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물량기준의 수출은 호조를 보였으나, 관련산업의 생산활동 둔화로 내수는 전반적인 부진 양상을 보였다. 합성수지 등 3대 유도품 기준으로 생산은 금년중 완공된 설비의 추가 가동으로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한 1,120千톤에 達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수용 出荷의 경우 合成수지와 합성고무가 부진한 반면, 合纖원료는 호조를 보이는 兩極化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輸出은 물량기준에 있어서는 전월에 이어 호조를 보였으나, 수출금액 증가는 최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물량 증가에 미치지 못하였다.

작년도 전체기준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보면, 우선 생산은 1996년중 완공된 설비의 본격가동과 1997년중 완공된 설비의 추가가동으로 전년동기 대비 19.1% 증가하였는데, 품목별로 TPA를 중심으로 한 합섬원료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졌다. 내수용 출하는 화섬景氣의 호조에 힘입어 합섬원료의 경우 전년대비 25% 가까운 신장세를 기록하였으나,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경우, 전년의 높은 수요증가에 대한 反作用과 관련산업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부진하였다.

내수부진에 따른 여유물량 해소를 위한 업계의 노력으로 물량기준으로 전년대비 28.7% 증가하였는데, 특히 합섬원료의 경우, 업계의 TPA설비능력 급증으로 2배 이상의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하반기중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수출채산성은 前年에 비해 소폭 惡化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에 들어서는 IMF 체제하의 긴축과 동남아 주요국의 경기위축에 따른 수입수요의 둔화 예상으로 전년에 비해 수급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하여 일부 업계에서는 최근 경쟁력이 없는 사업부문의 철수 등과 같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구조조정이 금년부터는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千톤, %)

	1996. 12월			1997.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産	993	10.6	16.3	1,120	0.4	12.8	12,244	19.1
· 出 荷	927	△0.4	8.8	1,100	△1.6	18.7	12,131	20.8
(內 需)	592	△0.8	11.1	650	△3.0	9.8	7,523	16.4
(輸 出)	335	0.1	5.0	450	0.4	34.3	4,608	28.7

#### ◇ 비금속광물

'97. 12월중 시멘트 내수는 전월대비 13.1% 감소,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4,777천M/T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날씨와 IMF 구제금융 신청 등의 영향으로 건설공사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生産은 안정적인 재고와 내수감소에 따른 업체들의 가동을 하락으로 전월대비 14.9%,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한 4,815천M/T을 기록하였다. 輸出은 전월대비 76.2%, 전년동월대비 146.7% 增加한 74천M/T을 기록하였으며, 輸入은 내수감소에 따라 전월대비 97.1%, 전년동월대비 96.5% 감소한 8천M/T을 기록하였다.

생산업체 보유 在庫는 전월과 비슷한 1,266천M/T을 기록하였다.

年間 시멘트 생산과 내수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각각 4.4%, 9.1% 增加한 59,811천M/T, 61,641천M/T을 기록하였다. 이는 경기부진으로 住居用 및 非住居用 건축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가 활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전년에 비하여 39.4% 증가한 3,034천M/T을 기록하였으며, 年初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안정정책과 제조업체들의 수출 억제, 수입 확대의 영향으로 1996년의 경우와 같은 시멘트 수급불안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 ◇ 섬유(纖維)

'97. 12월중 섬유산업은 연말의 IMF금융지원 영향으로 수출은 환율급등에 따른 수출용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수출 L/C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부진하였고, 수입은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됨으로 因해 그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반전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다소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화섬F사의 호조와 함께 최근 환율 급등으로 수출가격경쟁력을 회복한 의류 등 섬유제품류의 지속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종품목인 폴리에스터직물과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편직물이 부진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한 1,404백만달러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화섬F사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미국, 유럽, 브라질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폴리에스터직물 및 의류의 수출부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본, 홍콩 등에서는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수입은 내수시장의 침체와 최근의 환율인상으로 섬유제품류와 재가공 수출을 위한 섬유원료, 직물 등 섬유원자재의 수입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27.4% 감소한 312백만달러에 머물렀다.

'97년도 섬유산업의 수출은 주력품목인 직물류의 지속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화섬F사 및 편직물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전년대비 3.0% 증가한 182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섬유류 수입은 내수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IMF여파에 따른 환율급등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1985년 이래 10년이상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수입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됨에 따라 전년대비 6.8% 감소한 50억달러에 그쳤다.

섬 유 (百萬달러, %)

	1996. 12월			1997.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수 출	1,486	2.6	△2.9	1,404	△2.6	△5.5	18,248	3.0
섬유원료	74	0.8	△6.8	73	△4.6	△1.1	952	11.7
섬 유 사	141	3.8	13.6	140	10.8	0.1	1,775	21.1
직 물	833	0.3	1.2	751	△8.1	△9.9	10,424	2.7
섬유제품	438	7.3	△12.9	440	4.2	0.4	5,097	△2.8

### ◇ 조 선(造船)

'97년 12월중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IMF자금지원에 따른 국가신인도의 하락과 한라중공업의 부도여파로 전년동월대비 75.2% 감소한 8척 614천G/T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나, 작년도 총수주량은 대형유조선의 발주가 크게 증가한데 힘입어 201척 12,749천G/T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82.8%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다.

'97. 12월 중 建造實績은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설비확충을 완료한 기업들의 정상가동으로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한 24척 941천G/T을 기록하였으나, 작년도 총건조량은 상반기의 건조부진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한 172척 7,449천G/T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한편, '97년말 수주잔량은 보면, 수주는 크게 늘었으나 건조는 '96년보다 오히려 감소하여 전년말대비 39.2% 증가한 318척 18,220천G/T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조선기자재업계에서는 환율상승과 조선업체의 연쇄부도, IMF자금지원 以後 高金利현상의 지속 등으로 경영환경이 急速度로 악화되어 휴·폐업하는 中小業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조선기자재업계는 특수소재, 기계류 및 항해·통신장비에 소요되는 部品을 일본, 미국 等地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환율상승의 여파로 가격이 급상승한 데다 시중은행들이 L/C개설을 기피하고 있어 원재료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고금리추세의 지속으로 신규차입도 어려워 일부 中小業體는 휴·폐업하거나 조업을 단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파는 결국 다시 조선업체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 건조차질에 따른 對外信認

度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선업계와 조선기자재업계간의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다각적인 극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선 (千G/T, %)

	1996. 12월			1997. 12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受 注	2,476	261.5	134.2	614	△60.6	△75.2	12,749	82.8
• 建 造	878	51.6	23.4	941	26.1	7.2	7,449	△4.5
• 受注殘量	13,085	14.4	△5.4	18,220	△2.5	39.2	18,220	39.2

### ◇ 해 운(海運)

작년 12월중 乾貨物종합지수 MRI는 전월의 244.3에서 0.2포인트 하락한 244.1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라 '97년 평균으로는 市況이 부진했던 전년대비 1.3포인트 오른 248.6을 기록하는데 그쳐, 공급과잉에 의한 시황부진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7년 12월중 건화물運賃은 우리나라 등,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東南亞국가의 곡물수입 감소 등의 하락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상악화로 未船積되었던 곡물 및 광물물동량의 선적이 활발해 짐에 따라 보합수준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97년 10월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탱커운임지수 WS는 주요 원유도입국인 우리나라의 수요감소 영향으로 전월의 88.5에서 30.7포인트나 떨어진 57.8을 기록하였으나, 年平均으로는 시황이 부진했던 '96년의 62.7보다는 9.5포인트 상승한 72.2를 기록하여 시황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계 자동차船 시황은 수송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船隊규모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운임수준은 다소 호조를 보이고 있다. 세계 자동차 해상물동량은 '97년중 660만대에 달해 전년도 640만대보다

3.1%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본 엔貨를 비롯한 동남아 주요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일본車와 한국車의 수출물량이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反하여 세계자동차 전용선대는 지난 7월 이후 140만대에 그치고 있어 수송효율이 높고 운임수준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현대상선이 '98년중 6천대 선적규모의 자동차 전용선을 신규 투입할 계획이나, 자동차 물동량은 앞으로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I. 대외거래(對外去來)

### ◇ 수 출(輸出)

'98년 1월중 수출은 철강제품, 석유류 등이 對 동남아 수출부진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반도체, 화공품, 자동차 등 수출주종품목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 91.6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통관일수가 설연휴로 因해 전년동월보다 3일(약 12억달러) 적었음을 감안할 때, 비교적 좋은 조짐이라고 하겠다.

금년 1월중 수출신용장(L/C)來到는 금속제품이 84.2%로 호조를 보였으나 전기·전자제품이 39.9%, 석유류가 29.7%의 감소를 각각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의 58.5억달러에 비해 23.0% 감소한 45.0억달러에 그쳤다.

한편, '97년 11월중 품목별 수출을 보면, 경공업제품은 종이류, 귀금속 등에서 호조를 보였으나 석유류, 신발류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진을 보여 전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중화학공업제품은 그동안 부진하였던 자동차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된 데다 금속제품, 화공품, 전자제품의 신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品 目 別 輸 出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6. 11月		96. 1~11월		97. 10月p		11月p		97. 1~11月p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食料및消費財	2.8	△4.1	27.9	3.3	3.2	13.2	2.6	△8.9	27.3	△2.2
原料 및 燃料	6.6	69.0	57.0	29.9	7.5	19.1	7.1	7.8	73.2	28.6
輕工業製品	25.6	5.9	288.4	7.2	27.0	3.0	25.0	△2.5	302.7	5.0
織 維 類	13.8	2.5	154.8	△2.1	15.3	8.0	13.7	△0.7	160.3	3.5
신 발 類	0.6	△33.9	8.0	△28.0	0.4	△41.3	0.4	△41.7	5.5	△31.1
旅行用具	0.4	△25.6	5.0	△20.2	0.3	△13.2	0.3	△25.1	3.8	△23.2
重化學工業製品	79.0	△5.5	801.6	1.1	87.5	5.1	85.0	7.6	837.4	4.5
化 工 品	6.0	1.1	64.4	△2.2	8.0	22.7	7.0	16.7	78.9	22.4
金屬製品	6.2	△26.2	66.2	△28.1	9.3	36.9	7.4	20.5	79.5	20.1
機 械 類	15.0	11.8	136.3	10.3	15.6	14.9	15.7	4.8	152.0	11.5
電氣·電子製品	21.9	△16.6	222.4	△6.1	25.3	18.1	23.6	7.9	241.2	8.4
自 動 車	12.0	49.4	101.6	24.7	10.2	△13.3	12.0	△0.8	107.7	6.1
船 舶	5.6	△4.0	63.5	30.2	7.1	△31.4	8.2	46.1	54.5	△14.1
統 計	114.0	△0.6	1,175.0	3.7	125.1	5.6	119.6	4.9	1,240.7	5.6

나타났다.

따라서 11월중 전체 수출은 화공품, 금속제품 등 중화학공업 부문에서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한 119.6억달러에 이르렀다.

◇ 수입(輸入)

금년 1월중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본재와 소비재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외환·금융경색에 따른 은행들의 수입 L/C개설 기피로 수출용 원자재 등 필수적인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의 125억 2천만달러 보다 39.6% 줄어든 75억 6천만달러를 기록하여 史上 최대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중 수입신용장(L/C)개설은 양곡(28.8%)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원유, 기계류 등이 각각 75.2%, 73.4%의 지

속적인 감소세로 전년동월의 112.2억달러보다 58.3% 감소한 46.7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97년 11월중 품목별 수입을 보면, 식료 및 소비재가 환율인상,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15.5% 감소하였으며, 직접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재는 기계류,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25.0%정도 감소하였으며, 원자재도 원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하였고 특히 경공업원료, 석유제품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

◇ 지역별 수출입

'97년 11월중 對선진국 수출에서는 對EU 수출(44.6%)이 기계류,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큰폭 증가한 반면, 對美 수출은 반도체, 기계류 등의 부진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對日 수출은 반도체, 섬유류 등의 부진으로

品 目 別 輸 入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6. 11月		96. 1~11月		97. 10月p		11月p		97. 1~11월p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食料 및 消費財	14.2	18.9	154.4	20.8	13.7	△15.5	12.0	△15.5	146.3	△5.3
穀 物	2.8	39.5	30.4	37.5	2.2	△24.5	1.9	△31.1	23.8	△21.7
直接消費財	3.8	17.3	42.8	14.2	4.2	4.0	3.9	1.9	44.5	4.0
耐 久 財	4.7	3.4	51.6	12.7	4.3	△23.9	4.0	△14.2	49.0	△5.1
非 耐 久 財	2.9	34.5	29.6	32.0	3.0	△16.4	2.2	△25.4	28.9	△2.2
原料 및 燃料	64.8	6.2	677.0	9.8	64.9	0.1	64.0	△1.3	707.0	4.4
原 油	15.2	65.7	127.4	29.3	15.3	12.3	17.8	17.5	163.6	28.4
輕工業原料	5.0	△11.7	56.0	△9.6	4.9	△10.6	4.2	△15.0	50.6	△9.7
化學製品	7.0	△3.1	79.1	3.3	7.6	△2.2	6.7	△4.2	79.6	0.6
鐵 鋼 材	5.0	△23.3	62.6	2.3	5.5	3.5	5.2	4.0	54.3	△13.3
資 本 財	54.5	19.2	536.0	9.7	47.3	△13.0	40.9	△25.0	490.7	△8.4
機 械 類	21.9	13.6	227.3	7.7	17.6	△20.7	13.4	△38.8	183.2	△19.4
電氣·電子	19.2	12.6	194.8	9.4	22.4	9.3	20.9	9.1	220.7	13.3
輸 送 裝 備	6.8	55.2	47.3	8.6	1.7	△58.5	1.6	△76.2	27.9	△41.0
內 需 用	90.0	12.3	921.9	11.9	81.1	△11.2	74.3	△17.5	875.6	△5.0
輸 出 用	43.6	12.9	445.5	8.8	44.8	1.6	42.6	△2.2	468.3	5.1
總 計	133.6	12.5	1,367.4	10.9	125.9	△7.0	116.9	△12.5	1,344.0	△1.7

감소세가 늘어났다. 對開途國 수출에서는 對中國 수출이 화공품, 철강제품 등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섬유류, 기계류 등의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對東南亞 수출은 통화 가치의 폭락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중 對선진국 수입에서는 對美 △20.2%, 對日 △14.0%, 對EU △23.4%로 자본재 및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대개도국 수입에서는 대동남아 수입(△5.8%)은 소비재, 전기·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으며, 대중남미 수입은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11.2% 감소하였다.

따라서 '97. 11월중 우리나라의 수출입차는 對선진국 적자가 △13.8억달러로 크게 줄어 對개도국 흑자가 16.5억달러로 다소 축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7억달러의 흑자를 실현하였다.

◇ 국제수지

금년도 1월중 우리나라의 經常收支는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고 무역외 및 이전수지도 흑자를 지속함에 따라 30억 3천만불의 흑자를 이룩하였다.

무역수지는 수출이 반도체, 화공품 등 수출주요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크게 줄어 들어 21억 8천만불의 흑자를 보여 전월의 26.9억불에 이어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였다.

또한 貿易外收支는 內國人的 해외여행이 크게 감소하여 여행支給이 전년동월의 1/4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대리점수수료 등, 기타용



地域別 輸出入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6. 11月	96. 1~11月	97. 10月p	11月p	97. 1~11月p	
對先進國	輸出 (增減率)	49.2 (△14.6)	523.1 (△7.5)	56.3 (12.9)	54.2 (10.0)	547.7 (4.7)
	輸入 (增減率)	84.3 (6.0)	899.3 (7.4)	77.3 (△12.3)	68.0 (△19.4)	835.7 (△7.1)
	輸出入差	△35.1	△376.2	△21.0	△13.8	△288.0
美國	輸出 (增減率)	18.0 (△19.3)	198.2 (△9.2)	19.1 (4.6)	18.5 (3.0)	196.2 (△1.0)
	輸入 (增減率)	28.0 (5.8)	300.5 (8.1)	25.2 (△7.3)	22.4 (△20.2)	281.8 (△6.2)
	輸出入差	△10.0	△102.3	△6.2	△3.8	△85.7
日本	輸出 (增減率)	13.8 (△11.2)	144.7 (△6.7)	12.8 (△6.1)	12.0 (△12.5)	136.4 (△5.8)
	輸入 (增減率)	25.5 (△4.1)	288.7 (△3.4)	25.5 (△15.1)	21.9 (△14.0)	260.3 (△9.9)
	輸出入差	△11.7	△144.0	△12.6	△9.8	△123.9
EU	輸出 (增減率)	12.6 (△22.3)	139.3 (△5.0)	17.1 (29.4)	18.3 (44.6)	152.9 (9.8)
	輸入 (增減率)	19.2 (12.9)	193.8 (16.3)	16.8 (△12.7)	14.7 (23.4)	176.6 (△8.9)
	輸出入差	△6.6	△54.6	0.3	3.5	△23.7
對開途國	輸出 (增減率)	64.8 (13.6)	651.9 (14.9)	68.9 (0.3)	65.5 (1.0)	692.9 (6.3)
	輸入 (增減率)	49.3 (25.6)	468.1 (18.3)	48.6 (2.8)	48.9 (△0.7)	508.3 (8.6)
	輸出入差	15.5	183.8	20.2	16.5	184.7
東南亞	輸出 (增減率)	31.4 (5.2)	321.6 (8.5)	31.8 (△1.2)	30.1 (△4.2)	338.6 (5.3)
	輸入 (增減率)	14.1 (12.7)	143.7 (16.3)	13.4 (△7.0)	13.3 (△5.8)	145.6 (1.3)
	輸出入差	17.3	177.9	18.4	16.8	193.0
中國	輸出 (增減率)	11.1 (27.1)	100.6 (23.1)	12.5 (21.5)	12.3 (10.8)	122.9 (22.2)
	輸入 (增減率)	7.7 (17.4)	77.6 (14.5)	9.9 (23.4)	8.8 (14.0)	94.0 (21.1)
	輸出入差	3.4	23.0	2.6	3.5	28.9

역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월의 6.9억달러 적자에서 3.3억달러의 흑자로 反轉되었으며, 移轉收支는 해외교포의 국내로의 송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내국인의 해외송금도 주춤하여 5.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97년 11월중 자본수지는 전월(9천만불)의 자본 純導入에서 20억달러의 자본 純償還으로 反轉되었다.

자본도입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이 지속된데다 외화증권 발행 및 무역관련 신용도입의 감소 등으로 전월 9.8억달러의 자본도입에서 순상환으로 바뀌었으며, 자본유출은 6.3억달러 감소하였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와 증권투자가 크게 감소한 원인도 있으나, 개발기관의 단기자산 및 민간의 해외예치금 감소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經常收支 (억달러)

	97年p	97. 12月p	98. 1月p	97. 1月p
經常收支	△88.5	36.4	30.3	△30.5
貿易收支	△28.0	26.9	21.8	△22.7
輸出(FOB)	1,375.4	126.0	95.2	98.7
輸入(FOB)	1,403.4	99.1	73.4	121.4
貿易外收支	△63.0	1.9	3.3	△6.9
受 入	343.0	33.4	29.4	26.4
支 給	406.0	31.5	26.1	33.3
移 轉 去 來	2.6	7.7	5.2	△0.9

資本收支 (억달러)

	96. 11月	96. 1~11月	97. 10月p	11月p	97. 1~11月p
資本收支	13.0	151.8	0.9	△20.0	101.8
負債(資本導入)	25.0	238.8	9.8	△26.3	159.8
外國人直接投資	1.6	13.7	1.5	0.2	19.1
外國人證券投資	15.5	127.8	7.4	△10.0	111.0
貿易關聯信用導入	5.8	60.5	1.1	△1.2	16.9
其 他	2.1	36.8	△0.2	△15.3	12.9
資產(資本流出)	12.0	87.1	8.9	△6.3	58.0
海外直接投資	2.8	34.5	3.0	1.0	31.9
海外證券投資	1.6	7.4	2.3	0.5	12.7
貿易關聯信用供給	0.7	13.6	3.1	1.9	8.2
其 他	6.9	31.6	0.5	△9.7	5.1